

투데이 칼럼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안 새만금 유치 총력

전라북도 물론 부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만금을 전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부안의 위상을 드높이려고 새만금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옥수

지방부 부안주재 국장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하는 2023년 부안지역의 새만금 레저관광용지에서 세계가 하나 되는 청소년 축제의 한마당인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부안의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이러 제이제이 롤링 전 가나대통령, 우후르 케냐 타 케냐 대통령 등 가나 케냐 오만의 주요 인사들에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9호 사기장 이은규 선생이 재현한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청자도자기 차잔세트를 선물해 부안 청자의 아름다움을 세계로 전파했다.

현재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는 폴란드와 우리 나라 부안 새만금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자가 최종 확정된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부안 새만금으로 결정된다면 새만금 관광단지 일대에서 같은 해 8월 11박 12일 일정으로 전세계 160여 개국 베이든 포우웰경의 기념관과 묘지를 방문해 2023년 101주년을 맞게 되는 한국스카우트 백년 역사를

다. 부안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만금을 전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부안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부안 새만금 유치를 중심으로 기원하며 온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2023년 부안 새만금에서 전세계 청소년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길 기대한다.

보이스카우트 운동은 1907년 7월 포우웰 경은 자신이 군인시절에 착안하고 경험했던 여러 가지 훈련법을 실천에 옮겨보기 위해 여러 계층의 소년 21명을 대상으로 브라운 시사에서 실험이행을 실시 소년들에게 유익하다는 확증을 얻게 됐다.

아영생활을 통해 포우웰 경은 청소년 개개인이 능력을 잘 발휘하면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 각 국으로 전파된 스카우트 운동은 오늘날 160개 정회원

국, 3000여 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했다.

우리 나라는 1922년 조철호·정성채 선생에 의해 조선소년군과 조선소년척후단으로 각각 창립됐고 1924년 3월 초대 총재로 이상재 선생이 취임했다.

1937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가 1946년 3월 사단법인 '대한보이스카우트 중앙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재발족한 이후 1947년 조선소년단, 1948년 대한소년단, 1966년 보이스카우트 한국연맹 등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오다가 1968년 지금의 명칭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으로 바꿨다.

1953년 1월 보이스카우트 국제연맹에 가입했으며 1969년 7월 법률 제2118호에 의해 공포된 '스카우트 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육성되고 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민족, 문화,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해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로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인 포우웰 경이 1920년 영국의 런던 올림피아에서 34개국 8000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1회 국제야영대회를 '제1회 국제잼버리'라고 명명한 것이 효시가 됐다.

사설

도교육청, 보육 재정 해법 찾아야

도교육청의 보육 재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예산 지원분이 2주 후면 고갈된다는 소식이 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예전 그대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이 없이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측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누리예산 문제가 파탄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니 보충 문제가 아니다.

도교육청의 적자 재정이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는 도교육청이 딱 해서민이 아니다. 앞으로 있을 파행으로 어린이들이 입을 상처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보가 지난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사실을 통해서 내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고 말했다. 그게 이제 코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부채가 눈덩이인 도교육청으로서 지방채에 의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고충 속에서 죽을 맛일 것이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도교육청은 보육재정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말이지 모든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못 해봐왔던가. 또 드러놓는다면 곤란하다. 도교육청은 두 번 세 번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입장이 딱하기는 해도 도교육청도 잘못된 게 아주 없지는 않다. 도세가 비슷한 충남과 충북 그리고 강원도의 채무 규모와 비교해 살림살이를 방만하게 했다는 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전과 광주와 울산 등 다른 광역시의 교육청과 비교해보아도 그렇다. 도교육청은 나몰라라 눈감지 말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전북도, 새만금 기업유치 계속 활발해야

새만금 쪽에서 밝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들어왔던 터라 이번에는 신선하기까지 하다. 전북도와 MOU를 체결했던 미쓰비시와 도레이와 솔베이 등 외국투자기업들이 군산과 새만금에 몰려 있다.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생산 작업에 들어갈 거라니 말이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4월에 도레이는 7월에 솔베이는 12월에 입장이 잡혀 있다.

새만금에 외국기업들이 투자해 공장을 짓게 된 것은 잘 된 일이다. 그동안 외국기업은 물론이고 국내기업 유치 성적표가 생각보다 저조했었는데 일종의 청신호처럼 여겨진다. 전북도는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때 따라 일자리 창출에도 마음을 써야 한다. 도내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시장에 열악한 이유는 많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들라면 기업 유치의 저조함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고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관계자의 말이 있지만 미취업자들은 공감하지 않았다. 것이 사실이다.

전북도는 MOU 체결의 구체화해 힘을 실어야 한다. 서명만 해놓고 그 시기를 한정없이 미루고 미루다가 없었던 일로 파기시커버린 기업인들이 그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므로 기업유치가 계속 활발해야 한다는 지적은 실제로 기업유치 실적이 뚜렷해야 힘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언급하거나 전북도는 기업 유치와 관련해 이번처럼 활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바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서이다.

독자제언

습관적 무단횡단 이제 그만

우리는 평소에도 운전을 하다보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보게 되지만 대부분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수롭게 얹게 여기는 무단횡단에 매년 무단횡단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보행자가 약 50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는 하루 평균 1명에서 2명이 무단횡단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아직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도로에서의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이기도 하지만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43.1% 전체 교통사고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무단횡단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보행자 입장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는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과 남들도 하나까 자기 자신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심리, 횡단보도의 거리가 넓지 않아 건너게 되는 불편함 등 여러 가지 이유 등이 있다. 무단횡단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데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횡단보도가 조금 멀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동을 인지하여야 하고 우리 모두 시민 질서의식 제고를 하루 빨리 개선하였으면 한다.

김지연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시야 확보 통한 안전한 밤길 운전 요령

해가 짧아짐에 따라 일찍 찾아오는 밤길 운전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밤에 운전하는 것은 운전기능이 낮아 비하하여 떨어져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어두워진 주변 상황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므로 시야확보를 통한 밤길 안전 운전 요령을 숙지하여 예방하도록 하자.

첫째, 유리창을 깨끗이 사용하는 것이다. 유리창이 더럽거나 습기가 차있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불빛이 퍼져 보이는 신관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발 전 마른 수건 등으로 유리창을 닦고 습기가 있다면 외부공기를 유입시키거나 에어컨을 작동시켜 습기를 제거하여 원활한 시야를 확보하자. 둘째, 미등과 브레이크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밤길 운전에서 미등과 브레이크등은 다른 운전자들이 내 차량을 인식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본인

차량의 미등과 브레이크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평소 확인하여 밤길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이른 저녁부터 전조등(헤드램프)을 켜자. 이른 저녁 운전자는 도로가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 도로는 상당히 어두워진 상태이다. 특히 이른 저녁에는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조등을 켜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자. 넷째, 시각자대를 더 주의 깊게 살핀다. 앞서 다뤘듯이 밤길 운전은 생리적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조명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하게 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는 전조등이 비치는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전조등이 비치지 않는 시각자대에 보행자나 자전거, 취객을 발견치 못하여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비율이 매우 높다. 전조등 범위 밖 보행자와 자전거, 취객이 있을 것을 항상 생각하여야 한다.

김경용 고창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경장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